



## 백산한의원 이민영 원장 링 위를 지휘하는 한의사

아버지, 홍수환, 미국연방판사... 한의사 이민영 원장(45)을 국제복싱심판으로 만든 인물들이다. 결국 그들의 영향으로 이민영은 99년 3월 '국제심판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링 위의 두 복서를 심판하기 위해 오르는 순간 그는 의사로서의 온정을 배플기보다 냉정하리 만치 때서운 눈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낸다.

링에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손을 들어야 한다. 병원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을 들어야 한다. 링을 오를 때는 냉혹하게, 환자를 대할 때는 온정으로. 한의사와 복싱심판은 어찌 보면 상반된 일이다. 이민영은 다른 두 가지 일을 하나의 삶으로 엮어나가고 있었다. 처음 복싱을 시작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복싱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시합이 있는 날이면 무조건 어린 그를 데리고 장충체육관으로 갔다.

그 후, 1974년 고등학교 시절 홍수환과 아놀드 테일러의 시합이 생중계 되던 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싱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학진하 때까지 너무도 생생히 남아 있는 그 한마디는 결국 그를 복싱계에 입문시켰다.

복싱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던 82년, 헤비급 세계 타이틀전 TV 중계를 보던 중 주심이 미국 연방 판사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바로 저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싱심판이 되기 위한 장벽은 너무나 높았다. 선수 출신만 선호했기 때문이다. 포기 하지 않으면 길은 있는 법. 범아시아 복싱협회(PABA)의 심판진 결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시합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찾아가다. 채점을 하는 부심들 옆에 앉아서 나름대로 채점을 했다. 그 채점자가 바로 복싱심판의 자격여부를 판정하는 성적표가 되는 것이다. 5년 동안 성적표를 제출한 결과 99년 3월 드디어 그는 국제복싱심판자격증을 받았다.

그 해 8월 중국 심양에서 부심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데뷔했다.